

젠더이슈

코로나19가 바꾼 울산시민의 삶

코로나 19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코로나 19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일상으로 자리잡게 한 변화들도 있어 다시 한번 어떤 변화들이 시작될 지 주목하게 합니다.

이번 '젠더이슈톡톡'에서는 코로나 19로 울산시민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소비생활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는지에 대해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01

코로나19가 바꾼 울산 시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울산 시민의 70% 이상이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해 ...

- 울산시민 남녀 모두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취미활동 단체회원과 관계에서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울산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사회적 관계망에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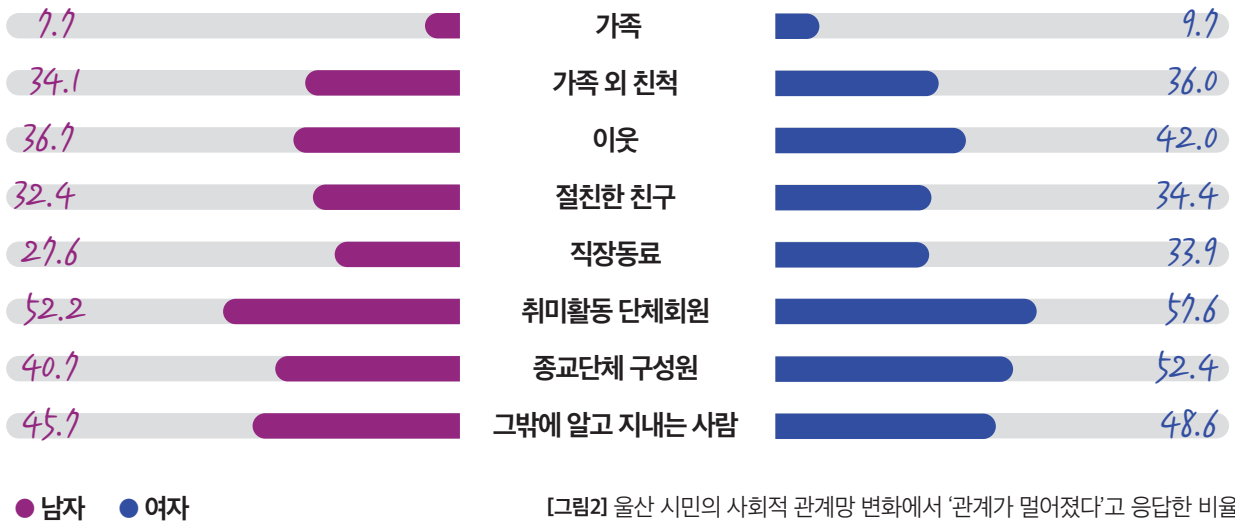


● 남자 ● 여자

[그림] 울산 시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에서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사회조사(2021년/통계청) *해당 응답자 비율에 맞춰 재산출

‘취미활동 단체회원’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가장 높아...

- 울산시민 남녀 모두 ‘취미활동 단체회원’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남
- ‘종교단체 구성원’과의 관계망 변화에서 울산시민의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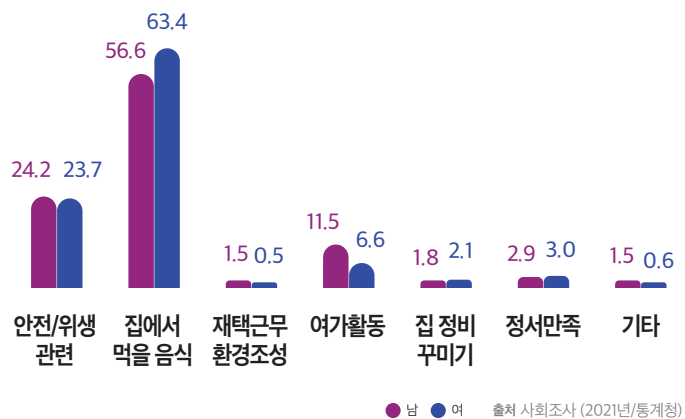
[그림2] 울산 시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에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 출처 사회조사(2021년/통계청) *해당 응답자 비율에 맞춰 재산출

02 코로나19가 바꾼 울산 시민의 소비생활

코로나 19로 가장 증가한 소비항목은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를 위한 소비’로 나타나...

- 울산 남성 56.6%, 여성 63.4%가 코로나 19 발생 전과 비교했을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를 위한 소비’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응답함
- ‘집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소비’, ‘안전 및 위생을 지키기 위한 소비’,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에서 남성의 응답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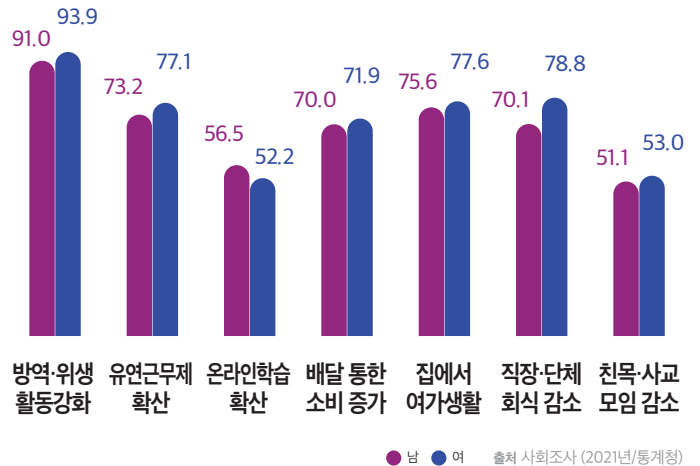
[그림3] 코로나 19 발생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소비



남성은 집에서 즐기는 여가취미생활 문화의 발달, 여성은 직장에서의 단체 회식이 감소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해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위생활동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 울산시민 남성은 91.0%, 여성은 93.9%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온라인 학습의 확산’과 ‘친목·사교 목적의 모임 감소’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방역·위생활동이 강화된 것 다음으로 울산남성은 집에서 즐기는 여가·취미생활 문화가 발달한 것에 대해 울산여성들은 직장에서의 단체 회식이 감소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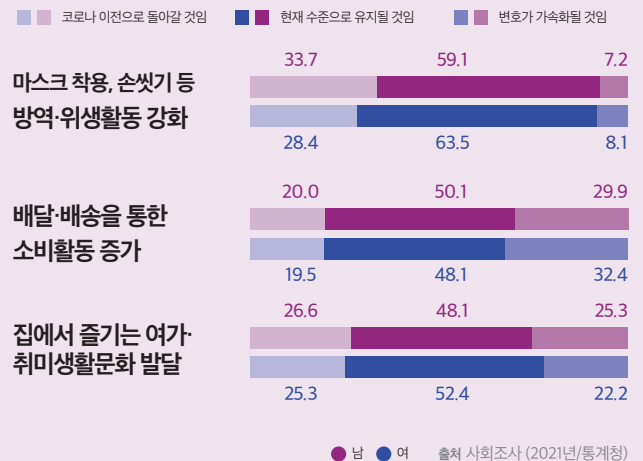
[그림4]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긍정적 견해



방역·위생활동,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활동 등 일상생활 속 변화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해...

- 코로나 19 이후 일어난 변화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의 방역·위생활동의 강화, ‘배달, 배송을 통한 소비 활동 증가, ‘집에서 즐기는 여가·취미생활 문화 발달’ 등의 변화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울산남녀 모두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위생활동이 강화된 것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특히 울산남녀 모두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 활동 증가’는 앞으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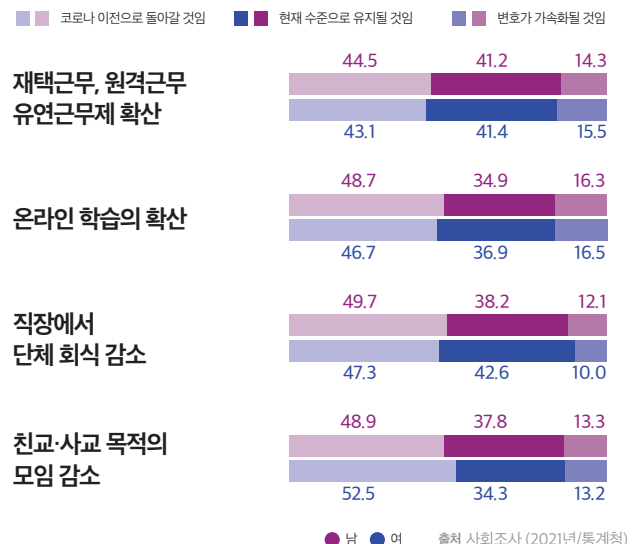
[그림5] 코로나 19로 변화된 일상생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 I



온라인학습 확산, 단체회식 감소, 친목모임 감소 등의 일상생활 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견해가 높게 나타나...

- ‘채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제의 확산’, ‘온라인학습 확산’, ‘직장에서의 단체 회식 감소’, ‘친목·사교 목적의 모임 감소’ 등의 변화가 코로나 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과 비슷한 응답을 보임
- 울산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단체 회식 감소’에 대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친목·사교 목적의 모임이 감소’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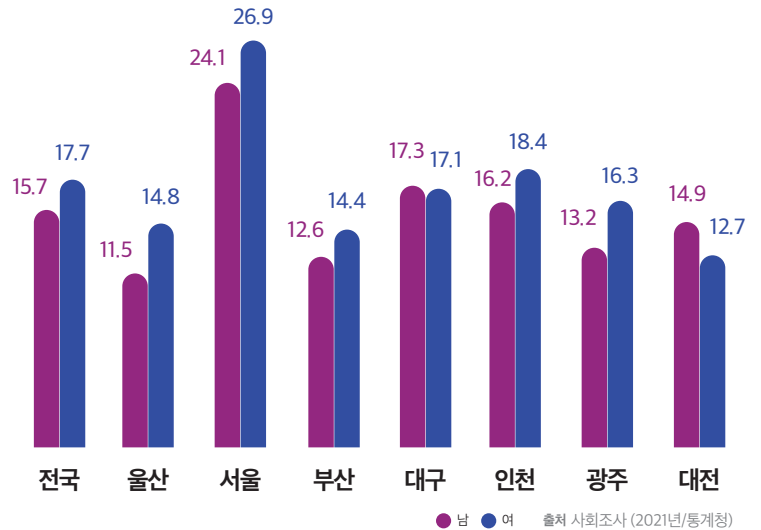
[그림6] 코로나 19로 변화된 일상생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 II



울산 시민의 12.7%가 재택근무의 경험이 있고 대부분 코로나 19로 인해 근무했다고 응답해...

- 코로나 19 기간 동안 울산 시민(19세 이상)의 12.7%가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전국 16.6%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 울산 남성의 경우 11.5%, 여성은 14.8%가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울산 남성은 특·광역시(남녀)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임
- 재택근무를 한 이유는 84.3%가 코로나 19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울산남성은 90.8%, 여성은 75.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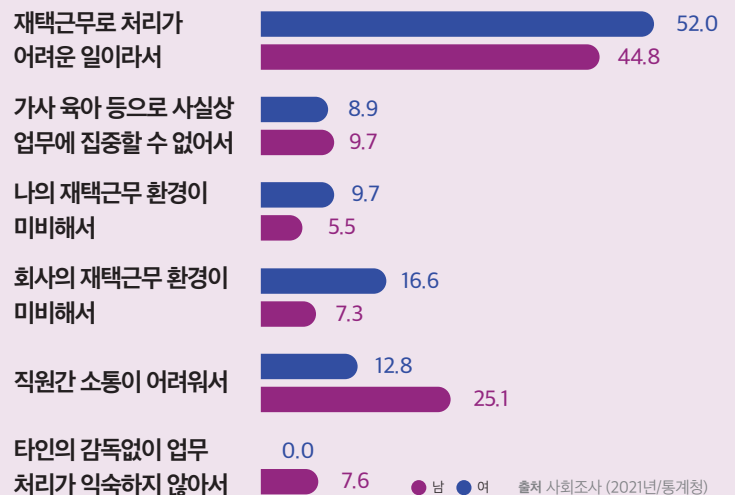
[그림7] 코로나 19 발생 기간 동안 재택 근무 경험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울산시민 중에서 53.2%는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비효율적인 이유로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 '직원간 소통이 어려워져서', '회사의 재택근무 환경이 미비해서'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울산 남녀 모두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울산 남성은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져서', 여성은 '회사의 재택근무 환경이 미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함

[그림8]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원격수업을 받은 적 있는 울산시민 중 53.6%가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해...

- 울산 시민(만 18세 이하) 중 86.0%가 코로나 19 발생 후 학교 현장 수업을 대체하는 원격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원격수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6%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임
-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환경에서 실험, 실습이나 대면 지도 등이 진행되기 어려워져서'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의 원격 수업 환경(시스템, 규정 등)이 미비해서'의 이유가 22.2%로 나타남

[그림9] 원격수업 경험 및 효과성

